

문 예 Latin American Culture

멕시코의 원주민 언어정책과 그 실태

신 태 식

다 종족·다 문화 사회에서 소수 집단을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원주민은 자기 종족의 언어를 모국어로 먼저 습득하고, 스페인어는 외국어처럼 배운다. 멕시코 통계지리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의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원주민 언어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6백만 명인데, 이 중에서 스페인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약 1백만 명에 이른다.

언어는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상징체계이므로 스페인어 외에도 원주민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6백만 명이라는 사실은 멕시코에 그만큼 다양한 원주민 집단과 문화·전통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다. 2000년 현재 멕시코에는 약 68개의 원주민 언어가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의 정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521년 에르난 코르테스가 멕시코를 정복하기 이전에는 대략 170여개의 원주민 언어가 존재하고 있었다. 스페인어와 접촉하기 이전에는 거의 모든 원주민어가 문자가 없는 구어의 형태였다. 게다가 정복 이후에는 원활한 원주민 통치를 위한 방편으로 원주민어 사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모든 관공서나 교육 기관에서 스페인어만 사용하게 하는 국가적 차원의 스페인어 공용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런 언어 정책이 20세기 초까지

Distribución porcentual de la población de 5 años y más por entidad federativa según condición de habla indígena, 2005		
Entidad federativa	Hablante de lengua indígena	No hablante de lengua indígena
Estados Unidos Mexicanos	6.7	92.7
Aguascalientes	0.3	99.2
Baja California	1.4	97.5
Baja California Sur	1.6	96.9
Campeche	13.2	86.2
Coahuila de Zaragoza	0.3	99.2
Colima	0.6	98.9
Chiapas	26.0	73.6
Chihuahua	3.4	95.6
Distrito Federal	1.5	97.6
Durango	2.1	97.5
Guanajuato	0.2	99.4
Guerrero	14.1	85.4
Hidalgo	15.4	84.1
Jalisco	0.7	98.4
México	2.6	96.8
Michoacán de Ocampo	3.2	96.3
Morelos	1.8	97.8
Nayarit	5.0	94.5
Nuevo León	0.8	98.2
Oaxaca	35.2	64.5
Puebla	11.7	87.9
Querétaro	1.7	97.9
Quintana Roo	19.2	80.2
San Luis Potosí	11.0	88.6
Sinaloa	1.3	98.2
Sonora	2.5	96.9
Tabasco	3.0	96.5
Tamaulipas	0.8	98.2
Tlaxcala	2.5	96.9
Veracruz de Ignacio de la Llave	9.5	90.1
Yucatán	33.3	66.2
Zacatecas	0.3	99.2

Nota: Los porcentajes no suman cien debido a la fracción de población que no especificó si habla o no lengua indígena.

표1) 지역별 원주민어 사용 인구 비율

(출처 : INEGI, Perfil sociodemográfico de la población que habla lengua indígena 2009)

적극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추진되던 상황 하에서도 많은 원주민어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무척 놀라운 사건이다.

식민 시대 이후 20세기 초까지 멕시코에서 다양한 원주민어를 문화적 가치나 학문의 차원에서, 원주민의 권리의 차원에서 보호하려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특수한 목적에서 원주민어를 사용한 역사적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복음화를 목적으로 스페인어를 원주민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한 예가 일부 있었을 뿐, 원주민 권

익의 측면에서 원주민 언어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언어정책은 원활한 통치를 목적으로 원주민 개개 집단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국가적 차원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원주민 집단에 소속감과 유대, 정체성을 부여하는 원주민어 사용의 금지와 스페인어를 통한 동질성 확보가 우선이었다.

원주민어 사용 금지 정책에서 원주민어의 보호 정책으로 전환은 1940년에 라사로 카르테나스 정권에서 ‘원주민어에 관한 법령’ 제정 회의에서 촉발되어, 1948년 원주민 연구소(INI) 설립에서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후속 조치로 1951년에는 교육부가 스페인어와 원주민어를 함께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 언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1964년에는 교육부 직속으로 원주민교육 담당부서가 설치되기에 이른다. 이런 일련의 원주민 정책의 제도적 틀에도 불구하고, 1992년에 이르러서야 형법 개정을 통해 스페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원주민이 재판과정에서 통역을 동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멕시코 원주민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하튼 2003년 폭스 정부 하에서 원주민의 인권, 문화, 사회적 지위 등을 보호·육성하는 방안으로 원주민어를 그 자치 지역에서 스페인어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언어로 공식 인정하는 ‘원주민어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멕시코 내에 존재하는 모든 원주민어가 스페인어와 더불어 그 역사 문화적인 공동체 내에서 공식적으로 공용어의 위상을 지닌다고 법으로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행정적 절차에서도 해당 지역의 원주민어를 사용하도록 연방의 차원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의 2조 11항은 원주민에게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중 언어 교육을 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멕시코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원주민 비율이 아주 높은 오아하카 지방의 오지를 방문하여 그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와 개인적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초등학교 교사는 멕시코 원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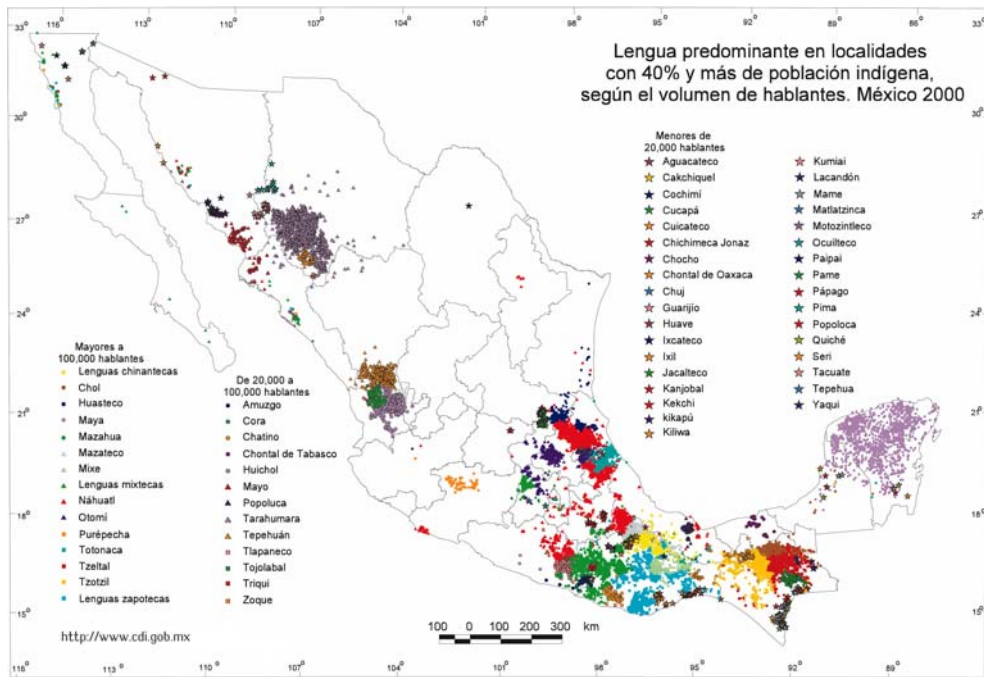


표2) 원주민어 사용 인구 비율 40% 이상인 지역 분포도(출처 : INI, 2000)

초등 교육이 당면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멕시코 원주민어의 교육에서는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 모집부터 어려움이 따른다. 총 원주민 인구의 20%가 전혀 스페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페인어와 원주민어를 구사하는 이중 화자 지원자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게다가 이중 화자가 지원했다하더라도 교수의 자질과 인격, 능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또한 초등교사를 양성한 후에도 원주민 교육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초등교사의 학교 배정이 '상과 별의 심판대'로 회자될 정도로 임의적이다.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원주민어 사용 지역이 전국적으로 편중과 집중되어 있어서, 지원자가 관련 원주민어 초등학교에 배정되는 일은 극히 희소하다. 일례로 나우아어를 구사하는 푸에블라 출신의 지원자가 베라크루스 주의 토토나카어의 원주민 지역에 파견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 하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과 교과 과정은 자연스럽게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초등교육과정에서는 언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 따라 여러 명의 교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중 화자의 교사는 대부분 초등학교 당 한 명이 배정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으며, 격주나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초등학교도 많다.

이렇듯 원주민어를 통한 의무 교육이 원주민 현지의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멕시코 교육부는 2004년부터 ‘학습 지원 테크놀로지 프로젝트’(Enciclomedia)를 추진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매스미디어와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등 첨단 교실 기자재를 구비함으로써 원주민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이 현대화되고 있으나(물론 필자가 방문한 지역에도 위성안테나와 텔레비전, 오디오, 비디오 자료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 이런 기자재와 콘텐츠가 그 해당 지역의 원주민어가 아닌 스페인어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초등교육과정을 현지의 원주민 언어로 교육하도록 규정한 ‘원주민어 권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원주민어에 의한, 원주민어를 위한 실질적인 초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첨단 기자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의 부재가 또 다른 문제로 대두하고 있었다. 일례로 필자가 방문한 지역에도 비디오 기기를 비롯한 몇 가지 장비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멕시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0~40년 내에 약 19개의 언어가 소멸될 것이고 좀 더 후에는 40여개의 언어가 사멸될 것으로 작가 카를로스 몬테마요르(Carlos Montemayor)는 경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민지 정복에서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러 약 50여개의 원주민 언어가 소멸되었는데 비해, 20세기 중반 이후에 사라진 언어만도 50여개이다. 다시 말해, 원주민어의 사용을 강제적으로 금지한 기간인 400년 동안에 소멸된 원주

민 언어 수와, 반대로 원주민의 권리와 사회, 문화, 전통을 보존하고 육성하려는 정치적인 움직임과 제도화가 진행된 반세기 동안에 소멸된 원주민 언어의 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카를로스 몬테마요르의 경고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보다도 초등교육 이후에 이어지는 중등교육과정부터는 모든 교육이 스페인어만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학생들이 외국어 학습을 통해 세계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과정에 외국어(영어나 프랑스어)를 포함시켜 고등학교까지 외국어교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되도록 하는 외국어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멕시코의 원주민어 정책과 그 실태는 ‘원주민어 권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에 멕시코 원주민의 경제상황이 더 열악해짐으로써 대부분의 원주민 공동체에서 스페인어를 보다 더 잘 습득하도록 자녀들에게 자기 종족의 모국어를 가정 내의 일상대화에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집단적 분위기가 팽배해지게 만들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원주민 집단의 도시 이주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멕시코 ‘국내에서’조차 정부의 원주민 언어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피부로 체험했던 필자의 귓전에 “국내와 ‘해외에서’ 원주민 이민자의 언어와 문화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2010년에 수정된 ‘원주민어 권리에 관한 법률’ 제3장 13항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